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모든 것을 만드는 신비한 마법 … 화학은 '인문학의 꽃'이다

화학, 인문과 첨단을 품다

전창림 지음

화학이 인문학의 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얼핏 인문학과 화학은 거리가 먼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홍익대 바이오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정창림 박사가 펴낸 '화학, 인문과 첨단을 품다'가 바로 그것.

미술학도를 꿈꾸던 저자는 대학에서 화학공학, 석사는 산업공학, 박사 때는 유기화학을 전공한 매우 이례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그가 생각하는 화학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표상하는 변화의 학문'이다.

사실 하늘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모든 삶은 변화하는 속성을 지녔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실상을 탐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화학이라는 사실은 사뭇 이채롭다.

그렇다면 왜 인문학이 화학의 꽃일까? 인간이 오랜 시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DNA라는 화학물질 덕분이다. 생각과 느낌, 사상, 사유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과 대사물질이 다름아닌 화학물질이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분야 또한 화학이다.

"생물학도, 물리학도, 수학도, 심지어는 음악, 미술, 체육까지도 화학이 없이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신기한 아이디어를 냈어도 그 근본 재료는 화학이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화학은 그 속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화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과학보다 더 크다."

저자는 역사적 기적에는 언제나 화학이 함께했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일본의 항복은 원자폭탄 투하라는 화학의 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대재앙인 흑사병을 막은 것도 화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화학은 첨단기술분야에서도 긴요한 학문이다. 현대의 3대 기술로 일컫는 IT, BT, ET의 중심 기술은 화학이다. 거의 모든 이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어가 첨단 화학에서 태동했다. TV나 컴퓨터, 태블릿의 얇고 가벼운 평판 디스플레이어도 화학의 혜택을 받고 있다.

"휴대용 기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의 하나가 전지임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것이다. 아침에 들고 나온 스마트폰이 전지가 다 떨어져서 쓸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여기에도 고도의 화학 기술이 들어간다. 그 밖에 스포츠, 과학수사, 자동차 등의 첨단기술은 화학에 아주 밀접하게 기대고 있다."

문화 분야, 특히 영화와 소설에서 화학을 주제로 한 작품도 있다. 더 나아가 화학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적지 않다. '신기전', '제5원소', '에볼루션', '마션', '향수', '플러버', '괴물', '개미' 같은 영화나 소설은 화학을 토대로 풀어낸 이색적인 작품들이다.

그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의 명화 가운데는 화학이 창조해낸 작품이 많다. 저자는 "낮 풍경을 그렸지만 화학작품으로 밤풍경('야경')이란 제목으로 바뀐 렘브란트의 명화, 과학으로 태동한 인상주의 그림들, 또한 화학자들이 새로이 만든 재료로 현란한 색채를 구사하게 된 명화들"이 그렇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저자는 화학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도 덧붙인다. 과도하게 화학물질을 기피하면서 올바른 위생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화학은 말 그대로 학문 분야이며 화학물질은 또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모든 물질의 성질과 그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화학이 더욱 발달해야 한다. 지구를 깨끗하게, 인류를 건강하게 하는 데 화학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다." 〈한국문학사·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낮 풍경을 그렸지만 화학작품 덕분에 밤풍경(야경) 제목으로 바뀐 렘브란트의 '야경'. 저자는 세계의 명화 중 화학이 창조해낸 작품이 의외로 많다고 설명한다. 〈한국문학사 제공〉

농경의 배신 제임스 스콧 지음·전경훈 옮김

문명사를 생각할 때 대부분 인류가 한곳에 정착하며 농사를 지으면서 국가를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본다.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다수의 역사학자와 다르게 예일대 정치학 스털링 석좌교수 제임스 C.스콧은 "초기 국가의 주민에게는 국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오히려 건강과 안전에 더 요긴하기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그가 이번에 펴낸 '농경의 배신'은 "최초의 국가들이 성립된 뒤에도 수천 년 동안 국가 중심의 외부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삶의 질이 더 나았던 만큼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닐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다. "역사적, 정치적 대항서사의 대가"로 불리는 정치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저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인 '정착생활', '신석기 농업혁명', '문명의 발흥', '국가의 기원'에 대한 표준서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국가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수의 지배층을 제외한 '국민'에게는 자유가 제한됐을 거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악화되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다. 초기 국가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곡물'이었는데 이는 조세 수입과 인력동원과 맞물려 있던 탓에 국가의 강제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하면 최초의 농경국가는 '길들이기' 과정의 축적을 통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불에서 식물과 가축, 국가의 국민과 포로를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부장제 가정 안에서의 여성 등의 길들이기를 통해 번식력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다는 의미다. 〈책과함께·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색채의 향연 장석주 지음

'색은 추억이고, 환상이고, 정의이고, 상징이고, 기호'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장석주. 장 시인이 이번에 펴낸 '색채의 향연'은 색에 관한 인문학적 사고의 산물이다.

저자는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색깔은 1000개 정도다. 이것도 엄청나지만, 놀라지 마시라, 디지털 기술로 빛의 삼원색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색깔은 1600만 개! 이토록 많은 색깔은 저마다 만물 조응하면서 마음 깊은 곳 금(琴)을 울린다. 색깔은 오감과 비벼지면서 감정과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색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흰색부터 노랑, 초록, 녹색, 파랑, 남색, 주황, 갈색, 금색, 은색, 회색, 보라, 분홍, 빨강, 자주와 모든 색의 집합체인 검정까지를 이야기한다. 흰색이 상징하는 겨울부터 시작해 봄, 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에 이른다. 또한 색을 토대로 시와 소설을 말하며 철학을 두고서는 문화와 삶을 맛깔스럽게 풀어낸다.

여러 색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빨강이 눈길을 끈다. "빨강은 생명의 원점이다. 생명은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절대 가치에 속한다. 그래서 빨강은 고귀하다. 빨강은 이성을 압도하는 본성의 색깔이다. 열정과 희열은 검정도 아니요. 노랑도 아닌 빨강을 타고 온다. 빨강은 사랑과 열정의 신호색이다."

이밖에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의 색' 초록, '상생의 기운이 감도는' 주황, '만질 수 없는 피안의 빛, 그 창백한 아름다움' 은색 등에 대한 특유의 사유도 눈길을 끈다.

책을 읽다보면 색의 단어는 같아도 사람이 느끼고 인식하는 색은 다르다는 사실과 만나게 된다. 흰색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다니 사뭇 이채롭다. 〈호미·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밀레니얼은 왜 가난한가 헬렌 레이저 지음

밀레니얼 세대를 일컬어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고 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이 세대들은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사회주의적 통찰을 담은 '밀레니얼은 왜 가난할까'가 출간됐다.

호주의 라디오 진행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저자 헬렌 레이저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시각으로 현 시대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임시직과 계약직 일자리 현상, 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살펴본다.

책은 '희대의 말썽쟁이 트럼프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자본주의는 결국 실패할 거라니까! 마르크스도 그렇게 말했어', '가진 자들이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 그게 바로 불평등 이데올로기야' 등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저자는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한다. 이들은 개개인의 다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세대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문화적, 경제적 불평등이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으며 호황기에 성장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달리 빈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유목민 호텔 세스 노터봄 지음·금경숙 옮김

"나는 페르세폴리스에 일주일을 머물렀다. 많이 배웠다기보다는 감각적인 한 주였다. 거듭 말하지만, 탐닉이었다. 아침 다섯 시의 빛, 오후의 빛, 해거름의 빛."

자연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시인의 감수성, 소설가의 기술 그리고 예술평론가의 통찰력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유목민 호텔'이 그것.

소설가이자 시인인 저자 세스 노터봄은 여행 경험이 많은 작가다. 1950년대 고향 네덜란드에서 남미의 수리남까지 운항하는 장거리 선박의 선원으로 첫 장기여행을 한 후부터 지금까지 여행을 멈춘 적이 없다고 한다.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체험한 경험들은 작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발표한 아홉 권의 소설과 여러 권의 여행서에 다양한 주제로 담겨 있다. 이 책 역시 그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와 호주 등 낯선 시공간을 여행하며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만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책은 '폭풍의 눈 안에서', '베니스의 한순간', '라이트 부인과 자바라 경: 감비아강 보트 여행', '뮌헨에서의 사색' 등 14개의 장으로 엮였다.

노터봄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에 시작된 이 여행은 내게는 언제나 쓰기, 읽기, 특히 관찰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곤 했다. 거기에서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떠돌이 인생은, 아마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떤 사람이 아닌지 가르쳐준 성싶다"고 말한다.

책은 어디에서건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짜릿함을 즐기고 진정한 이방인의 시선으로 그곳을 관찰하며 자신이 본 것의 언저리를 언어로 돌아보고자 했던 노터봄의 인생을 담았다.

〈뮤진트리·1만7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062)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X 핀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